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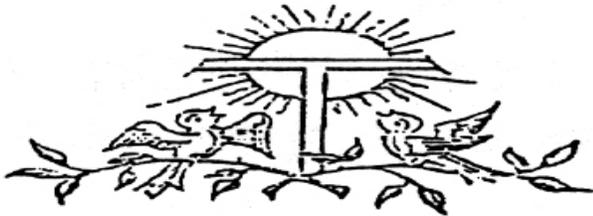
재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6-3호 2006년 3월 19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넓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얼마나 길며
위엄은 얼마나 높고
판단하심이 그 얼마나 깊은지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께 대한 우리 인식이 밝아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넓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얼마나 길며
위엄은 얼마나 높고
판단하심이 그 얼마나 깊은지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께 대한 우리 인식이 밝아지게 하소서.

주님, 당신을 항상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을 항상 갈망함으로써 목숨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의 모든 지향을 당신께 두고 매사에 당신의
영예를 찾음으로써 생각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저희의 모든 힘과 영욕의 감각을 다른 데에
허비하지 않고 당신 사랑의 봉사를 위해서만
바침으로써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이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저희의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을 이끌고
다른 이들의 선을 마치 저희 것인 양 즐거워하며,
불행 중에 있는 이들을 동정하고,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음으로써
저희 몸과 같이 저희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 성 프란치스코의 '주님의 기도 풀이'에서

사순절

1. 의의와 유래: 이는 재의 수요일부터 성목요일
주님의 만찬 저녁 미사 전까지, 예수 부활을 준비
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통회와 보속 그리고 회생
으로 재(齋)를 지키는 기간을 말한다(요기 42, 6).
이 기간 동안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은 금식재
와 금육재를 함께 지켜야 하고, 재의 색깔은
보라색(보속과 회개를 의미)으로 바꾸며, 전례
에서 알렐루야와 영광송을 생략한다.

이는 초대 교회 때부터 지키기 시작하였다. 3세기
까지는 부활 전 2~3일, 그리고 한동안은 36일을
지켰다. 그러다가 니케아 공의회(325년)에서
40일로 정하였고, 재의 수요일부터 지키기 시작
한 것은 교황 그레고리오 1세부터이다. 40일은
모세가 십계판을 받기 전 40일간 재를 지킨 것과
엘리아가 호렙 산에서 금식한 것, 그리고 예수님
이 광야에서 40일간 재를 지킨데서 유래한다.

2. 카니발(Carnival, 謝肉祭): 이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기도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40일간 금육, 금식, 참회, 희생 등을 해야
하므로, 사순절 전에 고기도 먹으며 즐긴 데에서
유래한다. 카니발의 Caro는 고기를 말하며 Valens
는 잔뜩 배불린다는 뜻이다. 초기 사순절은 주님
공현 축일부터 재의 수요일 전까지였다. 그러나
역대 교황들은 재의 수요일 전 한 주일로 정하였다.

3. 사순절과 신앙 생활: 사순절 동안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광야
에서 40일 동안 엄재하신 것을 본받아, 희생하고
봉사하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계명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
극기와 절제를 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특히 십자가의 길을 자주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해야 한다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삶



회칙 4조 -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의 회칙과 생활은,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는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그리스도를 당신 생활에 영감을 주는 분이자 중심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는 성부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며, 우리가 성령을 통해 도달하는 진리이며, 삶의 충만함을 주려고 온 생명이다. 회원은 특별히 복음을 자주 읽어서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1회와 2회 수도 3회의 회규도 이와 비슷한 말로 시작된다. 이 말을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당신의 가족에게 주고자 하신 삶의 핵심적인 방향이다. 성인은 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거룩한 복음을 따라 살도록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유언14)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재속 프란치스코의 삶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복음이 우리 삶의 규범이 되어야 하며,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 각자의 생각, 행동 그리고 행위는 복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복음이 자기 자신의 생활이어야 하며 생활 체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복음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마음으로 동화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사는 것은 거룩한 영의 활동에 이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이다. 따라서 프란치스코 가정에 입회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을, 가능한 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마땅할 것이다. 복음은 모든 프란치스코 영성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거룩한 복음은 구세사를 통하여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그 절정을 드러내고 이룩하게 되는 모든 거룩한 계시에 관한 “기쁜 소식”이다. 우리의 성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업적을 쌓거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아니다. 프란치스코의 삶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실행하는 것뿐이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복음을 실행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복음을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며 묵상한 바를 충실히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 프란치스코는 1208년 2월 28일 성 마티아 사도 축일에 포르치운쿨라 성당에서 복음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문자 그대로 지켰다.

둘째, 단순한 마음으로 곧 오직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느끼고 받아들여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복음에 따른 그의 생활은 오직 하느님의 뜻만을 실천하는 삶으로써 마음의 순결과 단순함에 기초를 둬으로써 가능하였다.

셋째, 복음은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이므로 무엇보다도 ‘듣도록’하여야 한다. 이는 성모 마리아와 요셉의 모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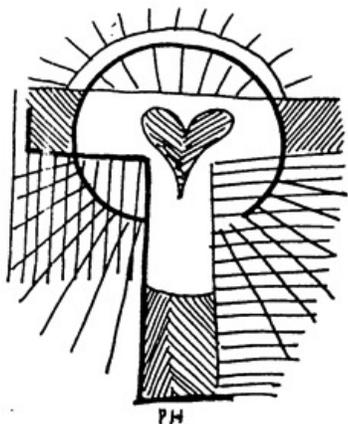
넷째, 예수님을 구체적인 생활에서 중심이자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곧 예수님을 생활의 중심으로, 영감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 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철저히 실행하여야 한다.

끝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느님의 선을 관상하고 관상한 바를 행동과 말로써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야 한다.

- ‘기경호 신부님의 회칙 해설서’에서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놀랍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께서 용서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허물과 죄악만을 바라보면서 온 생을 소모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나는 너희의 죄와 허물을 일일이 살피지 않는다.' 고 한것은 하느님이 그대를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대는, 하느님이 '동쪽에서 서쪽이 멀리 있듯이 그렇게 그대의 죄를 던져 버리겠다'고 한 말씀이 과장된 말이라고 여기는가? 그대는, 하느님이 '내가 너의 죄를 나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 고 한 말이 하느님이 제멋에 겨워서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예로니모 성인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베들레헴에서 성서 번역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날 성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성인은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말하였다. "사랑하올 예수님, 당신께 제 마음이 담긴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기 예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하였다.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것인데 그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말을 듣고는 성인은 계속 고집을 부렸다. "그래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가난한 수도자이지만 마침 어떤 사람이 좋은 데 쓰라고 돈을 주었거든요. 정 그러시다면 이 돈을 드릴테니 받아주시겠습니까?" 아기 예수는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였다. "정 그렇다면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나는 돈이 필요 없소." 그런데도 예로니모 성인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자 아기 예수께서는 미소를 거두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정말 내가 기뻐할 선물을 하고 싶다면 그대의 모든 죄와 욕망을 나에게

다오. 내가 바라는 선물은 그것뿐이다. 나는 그대의 죄와 욕망을 보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죽을 것이다. 그것만큼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채울 선물은 없으니까."

예로니모 성인의 일화를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로 간주하기에는 매우 의미 심장하다. "그대의 모든 죄와 욕망을 나에게 다오. 내가 바라는 선물은 그것뿐이다." 이 말은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려 준다.

은총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만심도, 포르노를 즐기는 것도, 간음행위도, 나아가 살인조차도 하느님의 은총을 감하지 못한다. 은총은,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고 계심을 가리킨다."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을 걷어 차거나, 무시해도, 그분은 거절하거나 경멸해도, 반항해도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하느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악이 그분의 사랑을 감할 수 없고,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우리의 바보스런 행위가 그 사랑을 위태스럽게 하지도 않고, 우리의 충실함이 그분의 사랑을 벌 수도 없다. 하느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덜 사랑하고, 성공했다고 더 사랑하는 분이 아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회심하는 인간/ 송봉모 신부님> 발췌

영적 생활은 무슨 특별한 생각, 사상 또는 느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의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체험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제네시 일기' 중에서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 3월 25일 토요일 저녁 5-9까지 한테레사 자매 댁에서 사순 피정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 있음. 피정비 없음.
- + 4월 월례회는 부활절과 날짜가 겹치므로 4째 일요일은 월례회 그리고 5째 일요일은 구역 모임을 하겠습니다.



3월 16일
 김태승 안티모 신부님께서 저희들의 영적 보조자로 한국관구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기도 중 기억합시다 ...

- + 안티모 신부님께서 여기 계시는 동안 영육간 건강하시길 ...
- + 지구형제회 총회가 3월25일 있습니다. 이날 차기 평의회원 선출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지길 ...
- + 보나벤투라 형제회원들과 가족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
- +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해 ...



- 이월금: \$376.01
- 회비: \$180.00
- 인쇄비: \$59.11
- 잔액: \$496.90
- 후원회비: \$80.00

3월 월례회 시간표

- 1:00 PM - 다과
- 1:30 PM - 양성 교육
- 3:00 PM - 친교, 회비/후원회비 납부
- 3:15 PM - 월례회/미사

✧ 미사 성가: 지침서 ✧

- 입당: 82번 골고타 언덕
- 봉헌: 34번 주여 당신 종이 여기
- 성체: 46번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 마침: 81번 십자가에 가까이

신자들의 기도:

조마리아, 김아가다, 남야고버, 김젼마



본명 축일을 축하합니다

- 2월5일 김옥순 아가다, 조봉순 아가다
- 2월 22일 강옥희 딸가리다
- 3월 12일 허명자 세라피나
- 3월 31일 이장훈 아모스

간식담당

- 3월: 허세라피나, 조마리아, 한테레사
- 4월: 김아가다, 하테레사, 괵로사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509-1388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